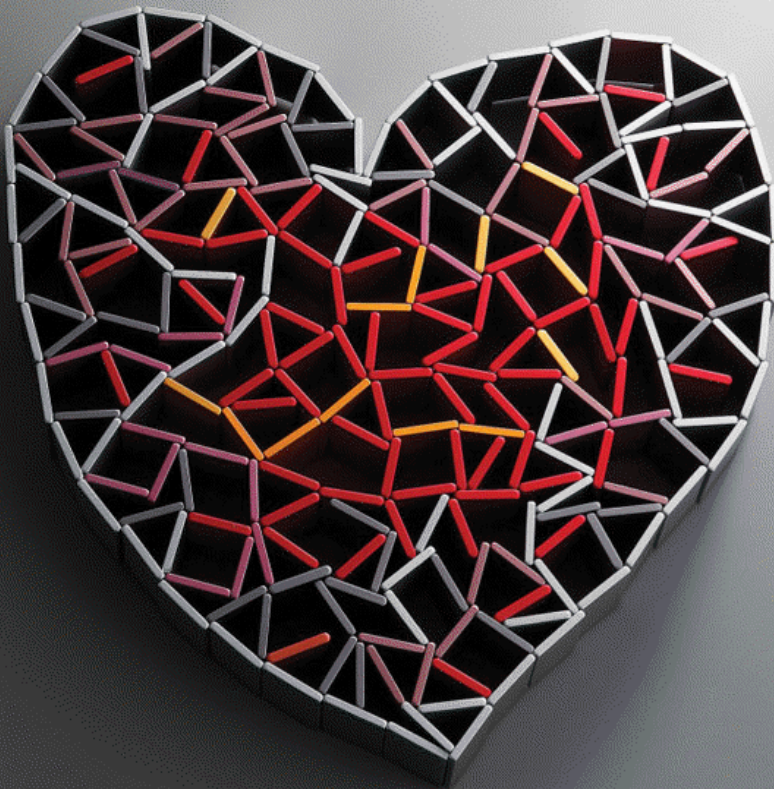


2012년 5호

나눔과 행복

sharing and happiness



「Burning LOVE」

2012년 진영섭 作

통합재활치료중심
나눔과 행복병원

- 03 | 나눔과행복병원 소개
- 04 | 병원장 인사말
- 06 | 나눔과행복 활동소개 #01~06
- 18 | 요리, 바리스타 강좌 · 강사진
- 19 | 연혁, 핵심가치의 정의
- 20 | 외부강연, 학술활동
- 21 | 2012년 상반기 입·퇴사자 실습기관 소개
- 22 | 자원봉사자 명단
- 23 | 후원자 소개 및 후원안내
- 24 | 해운대힐링스병원 소개

나눔과행복병원 소개



○ 병원이념(Philosophy)



○ 병원층별 이름 및 용도소개

옥상	산책 및 휴게공간
6F	행복병동
5F	(2개층) 회복기 재활치료 병동 5F 병실 6F 시청각교육실/도서관/운동시설 재활치료 프로그램실
4F	나눔병동(급성기병동)
3F	희망병동(알코올 특화 병동)
2F	낮병원, 위캔클럽
1F	외래 진료실/원무과/약국/프롤로그
-1F	식당/영양과/주차타워 입구
-2F	강당

○ 의료진 소개

서 영 수

정신과전문의 / 의학박사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고용대책위원회 위원
한국정신분석학회 정회원 (한국정신분석학회 심층 수련과정 이수)
2008-2009 미국컬럼비아 대학교 정신과학교실 정신재활치료연수과정 이수
20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표창
2012. 부산광역시장 표창(장애인의 날 기념식)
2006.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만성정신질환자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2006. 부산광역시장 표창(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하 태 민

정신과 전문의
알코올 치료센터장
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전 동래병원 알코올 치료센터장
전 세명병원 진료부장

정 성 수

정신과 전문의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정회원
중독정신의학회 평생회원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전 동래병원 알코올 병동과장
전 해운대 알코올 상담센터 촉탁의

○ 나눔과행복병원의 핵심가치(Values)



Excellence 최고(전문성) 지향
Customer Oriented 고객중심
Reliability & Respect 신뢰와 존중(치료진-환자 / 치료진-치료진 / 원장-직원)
Ownership 주인의식
Co-prosperity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이바지(병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상생)

병원장 인사말

서영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눔과행복병원 원장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대표이사
해운대힐링스병원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가슴 벅찬 꿈을 안고 나눔과 행복병원을 시작한 지도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세 돌이면 신체적으로는 흔히 세발자 전거를 탈 수 있고, 셋까지 세고, 아주 기본적인 입고 먹고 씻는 활동을 할 수 있

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적절히 도와주면 자신과 주변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율성(autonomy)을 얻게 되고, 좋은 엄마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담아내어 당장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됨으로써 주변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돌아보건데 나눔과행복병원은 지난 3년간 열심히 달려온 결과 다행스럽게도 양적 질적으로 세 돌에 맞는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모두가 나눔과행복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한결같이 든든한 후원자로서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도움주셨던 많은 분들의 덕택입니다.

현재 나눔과행복병원은 안정된 상태로 진화를 거듭해 나가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어떠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나눔과행복의 가치에 기반한 자율적인 선택과 방향설정으로 능동적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보다 체계적이고 우수한 진료를 위해 지난 2011년 11월1일자로 '나눔과행복병원'과 '해운대힐링스병원'이 통합하여 하나의 병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재활치료' 중심의 '정

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과 '중추신경계 신체재활치료' 중심의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이 통합을 이루고, 갑상선유방센터, 건강증진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추가 개설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새로운 재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11월1일자로 두 병원의 명칭을 '나눔과행복병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보다 온전하게 공유하며 '(동래) 나눔과행복병원'과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동래) 나눔과행복병원』은 130병상의 통합정신재활치료 중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으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노력으로 급성기 입원치료, 외래진료, 낮병원 주간재활치료 및 직업재활센터 등 모든 영역에서 꾸준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우수정신보건사업 수상, 부산광역시장 표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부산시내 의과대학 2곳을 비롯한 간호대학,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정신보건 관련 사회복지 및 간호 대학원 등 현재까지 13개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고 학생실습을 제공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WHO 협력기관 및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 주관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 (FLK: Family Link Korea)'의 부울경지역 거점병원으로 선정되어 가족강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나눔과행복병원』은 321병상의 중추신경계 신체재활치료 중심의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으로 갑상선유방센터, 건강증진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등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최고수준의 특화된 전문센터 개설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문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두 병원이 통합을 이룬 지 1년만에 이루어지는 나눔과행복병원으로의 명칭 통합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병원명을 변경하는데 따르는

일정부분 불가피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눔과행복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이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두 병원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조직의 가치와 문화는 하나로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통일된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믿고 잘 따라준 두 병원의 부서장들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와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 서로 다른 진료내용과 조직문화를 가진 두 병원이 하나의 병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간단치만은 않은 힘든 과정이었으며 아직도 남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면 즐기라 하듯듯이 진심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하나의 공통된 조직문화가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동참을 기대해봅니다. 때를 맞추어 홈페이지를 새로이 통합개편하고, 기존의 나눔과행복병원의 로고가 나눔과행복의 가치를 충분히 잘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로고를 만들게 된 것도 두 병원의 전 직원 여러분들이 통합과 새로운 출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쉽지 않은 결단이었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보원통합의학연구소 소속 선배로부터 '클린(CLEAN)' 프로그램이라는 식이요법을 소개받고 그 내용에 매력을 느껴 3주간의 체험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로 배울점이 많아 잠깐 소개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해독시스템을 지니고 있어 제대로 작동하면 몸의 불균형이 바로잡히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며 규명이나 설명이 되지않던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독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의 훌륭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클린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몸에 기본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식이를 통해 가능하다며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당장 입에 맞고 맛

있고 보기좋고 향이 좋은 혹은 편리한 것보다는 다소간 불편하고 지금 당장은 입맛에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몸의 해독작용을 돕는 식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3주간의 체험을 통해 현재 편리하고 익숙한 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입맛을 증독시키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급급해하지 말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 조직과도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의를 쫓자면 우선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조직의 잠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시급하지 않고 때로 식상하고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과행복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중요시하고, 무엇보다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도 건재하게 존속하는 기업에는 핵심가치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우리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나눔과행복병원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 한사람 한사람의 인격에 나눔과행복의 가치가 스며들어 생활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흔히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잉어는 작은 어항에서는 5cm 남짓 자라는 정도이지만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20cm 전후까지 자라고, 넓은 강에서는 1m 남짓하는 크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사람의 꿈과도 닮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꿈은 무한대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 꿈을 자그마한 틀에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꿈을 키워 나가고, 그 꿈을 이루는데 한걸음 한걸음 자그마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자 합니다.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주시고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2012년 4월 19일 서영수 원장님께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날 서울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서영수 원장님은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사장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다음날인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기도 했는데, 제 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강서 체육공원에서 서영수 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날 기념식에서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서영수 원장님은 정신과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의 진료는 물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

하여 주간 재활 및 직업재활중심의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해 오며 많은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물론 정신질환의 재활치료에 대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목마르며 더 많이 노력하는 나눔과행복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나눔과행복의 수상 경력

- 2006.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정신보건유공자 표창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서영수 원장
- 2006. 만성정신질환자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서영수 원장
- 2008.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정신보건유공자 표창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박경덕 팀장
- 2010. 부산광역시 우수 정신보건사업 선정,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위캔클럽
- 2011. 한국바리스타 대회 장애인부 동상수상, 프롤로그
- 2012. "장애인고용촉진대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표창 수상, 서영수 원장
- 2012. "장애인의 날 기념식"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서영수 원장



● 행복한 미술 프로젝트

나눔과행복병원 낮병원의 수많은 회원님과 자원봉사자 선생님께서 10개월 이상 준비한 물고기 작품들은 gallery UM의 개관 1주년 기념전시 '편견과 소통전'으로 뜻 깊게 꾸며졌다. 처음에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진 박스 조각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할지 몰라 서툰 붓질로 메꾸었던 회원님들이었지만 마지막에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었다.

본래 미술 치료는 미술과 심리학의 결합으로써, 특히 말로 감성이나 경험을 표현하는데 서툰 정신장애인은 미술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행복한 미술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미술 치료를 넘어 회원님들에게 전시회의 작가가 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좀 더 배가시킬 수 있었다.

전시회 준비를 위해 진영섭 교수님과 함께 회원님들은 gallery UM에 모여 이제까지 만든 작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들은 개별적인 작품이 아닌 물길을 따라 다 같이 헤엄치는 하나의 작품으로 보였으며 '함께' 한다는 의미를 주기에 충분했다. 기다리던 오픈식이 다가왔고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의 축하 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회원님들은 격식을 갖춘 옷차림에 손님들과 감사의 인사말을 나누며 작가로서 손색이 없었다. 행사 중간에는 일본에서 오신 피아니스트 히데오 고보리 씨의 축하공연까지 이어지며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다.

비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편견을 깨뜨리는 소통이 아니었을까?

- Gallery UM 개관 1주년 기념전시 "편견과 소통" 전
2012.03.27(화) ~ 2012.04.21(토)

행복한 미술 프로젝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차 전시는 부산도시철도 물만골역 인권전시관에서 이루어졌다. gallery UM보다 더 넓은 역사 안에서 회원님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만든 물고기를 전시하니 마치 거대한 아쿠아리움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또한 이번 전시가 주는 의미는 남달랐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회원님들께서 시도한 것에서다. 결국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공간을 채운 것은 회원님들의 노력이었다.

-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편견과 소통" 전
2012.05.01(화) ~ 2012.07.31(화)

"편견과 소통"전은 끝났지만 매주 수요일 나눔과행복병원 낮병원 회원님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다른 주제의 작품을 만들며 또 다른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이제는 프로그램 시간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하나의 행위가 아닌 작품을 만드는 수준 높은 활동이 되었다. 다음 전시회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작품들이 대중과 소통할지 궁금해진다.



1. 개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 증진의 염원을 담아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대표인 진영섭 금속공예가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행복, 나눔과행복병원이 지난 1년 동안 행복한 미술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나눔과행복병원에서 진행된 행복한 미술프로젝트는 환자분들의 미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색이나 형태의 경험과 취급을 통해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자기 표현과 미적 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진행된 작품들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공동주관하여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 인권전시관에서 “편견과소통”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편견과 소통”전을 통해 다양성과 편견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서로 다른 특성을 강조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알리고자 하였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정신건강의 편견과 곁을 메우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전시기간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전시기간중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월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 오후 총 5회기에 걸쳐 정신보건전문 요원들이 정신건강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정신건강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신건강상태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보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 상담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진행날짜

2012년 5월 1일 ~ 2012년 7월 31일
(매달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총 5회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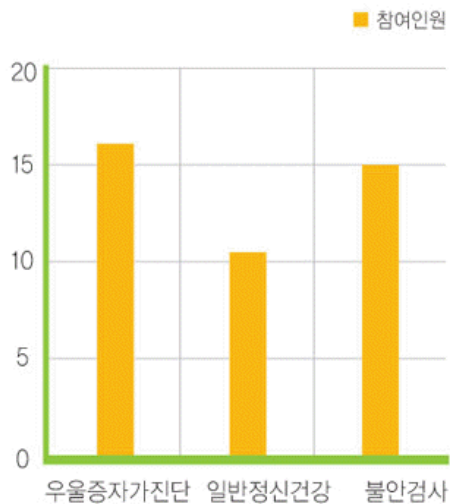


3. 상담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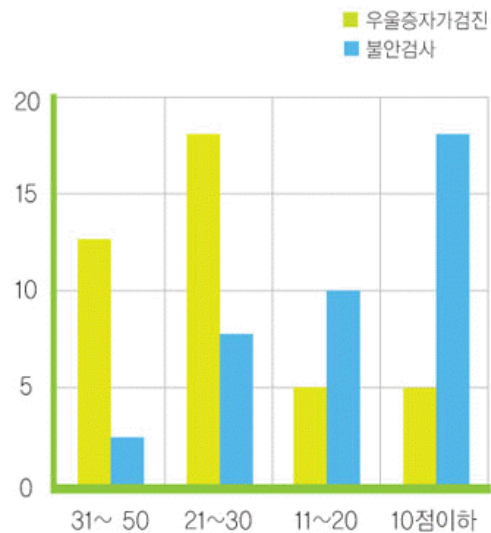
나눔과행복병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

성명	소속	자격요건	참여시수	비고
박경덕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장 위캔클럽 시설장	정신보건간호사 1급	2	전체기획·총괄
곽혜정	위캔클럽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4	보고서작성
김재덕	위캔클럽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4	
허다운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4	
김혜준	나눔과행복병원 간호팀	정신보건간호사 1급	4	
이미경	나눔과행복병원 간호팀	정신보건간호사 2급	2	
최민애	나눔과행복병원 간호팀	정신보건간호사 2급	2	
이소연	국가인권위원회부산사무소		10	공동주관

4. 참여 현황



5. 검사결과



불안검사의 경우 22점 이상일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며 우울증자가검진의 경우 24점 이상일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날 기념 통합체육대회 (나눔과행복병원 해운대힐링스병원)

기획홍보팀 / 김혜준



지난 5월 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국장 애인 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체육관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과 해운대힐링스병원이 통합한 이후 처음으로 200여명이 되는 전 직원이 모이는 자리여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서영수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해운대힐링스병원 재활치료실 배준호 실장님과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 허다운 선생님의 선수대표 선언과 준비체조를 한 후 불맛이 팀명을 정하여 개나리팀과 진달래팀으로 나누어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각팀 응원전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 개나리팀이 선두를 지키며 본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녀가 짝을 이루어 진행된 짝피구, OX 퀴즈, 2인3각 경기, 인간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번외로 꼬리잡기까지 쉼 없이 달렸습니다.

여자선수들의 피구경기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직원들의 터프한 모습도 보았으며 단체줄넘기에서는 각 팀의 단합된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애물 경기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체육대회의 꽃 릴레이를 했는데 열심히 달리는 선수와 열심히 응원하는 직원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달래팀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여 최종 우승을 하시고, 각종 경품 추첨, 백선미 원장님의 폐회사를 끝으로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뒤이어 마련한 모처에서의 전체 회식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훈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준비과정이 있었지만 이사장님, 원장님들을 포함한 전직원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며 응원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겁고 보람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통합된 나눔과행복병원이 되었을 때 더 화합하고 발전하는 나눔과행복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또 그렇게 되리라 믿어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 나눔과행복병원 어울림 한마당

나눔과행복병원 간호팀에서는 2012년 5월 19일 본원 옥상 '하늘정원'에서 병동 환우분들을 모시고 제3회 나눔과 행복 봄 운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나눔팀과 행복팀으로 나누어 OX퀴즈, 응원전, 포스트잇 떼기, 개미떼 풍선 터트리기, 2인3각, 몸으로 말해요, 팔씨름, 탁구, 단체 줄넘기, 미션 릴레이 등 여러 종목의 게임이 이루어 졌는데 특히 제일 인기가 있었던 종목은 '포스트잇 떼기'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포스트잇 떼기'는 상대 팀에게 포스트잇을 붙이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얼굴 근육, 콧바람, 입바람을 이용,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포스트잇을 떼는 게임인데 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자 서로의 얼굴을 부비부비 맞대는 귀여운 반칙에 모두들 박장대소하였습니다. '몸으로 말해요'에서는 제시어가 '뽀로로'가 나오자 당황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다 할 수 없이 "패스"를 외치기도 했지만 제시어를 표현하는 환우 분들의 순발력과 표현력에 모두들 감탄하였습니다.

봄 운동회를 통해 서로의 숨겨진 장점도 알고, 부족한 모습에는 사랑을 가득 담은 격려의 박수도 보내고, 다 같이 크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봄 운동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영택보호사 감사장 전달식

2012년 7월 12일 나눔과행복병원 3층 희망병동에서 1년 넘게 근무한 정영택 보호사의 환송회와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정성수 원장은 "정영택 선생님은 함께 생활하는 환우분들에게 한 번도 나쁜 평가 없이 칭찬만 들어왔고, 병원의 핵심가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객중심'에 부합되는 보호사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아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게 되어 남은 이들에게는 아쉬운 마음이 큰 하루였습니다.

정영택 보호사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나눔과행복 사랑의 도서관 활성화

나눔과행복병원 간호팀에서는 2009년부터 환우분들의 정서함양과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사랑의 도서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20년이란 긴 세월동안 모아 온 소중한 귀한 1000권이 넘는 책을 기증해주신 건축 설계사 윤진 님을 비롯하여 여러 환우분들과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더욱 풍성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병동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원활한 도서대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환우분들이 기증한 예쁜 화분들이 놓여져 더욱 산뜻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도서관 활성화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한 권, 한 권마다 기증자의 성함을 기입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종류는 관계없이 외래 접수창구에서 도서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도서를 기증하여 나눔과 행복을 실천해보세요^^



통합재활치료 중심의 나눔과행복병원 재활팀은 다학제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한팀을 이루어 입원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낮병원을 통한 주간재활치료, 직업재활센터 위캔클럽 운영 등 정신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통합적인 모델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강점을 중시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회복과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재활팀 새로운 소식

나눔과행복병원 주간재활프로그램 개편

2012년 하반기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운영중입니다. 이번 개편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선 함으로써 회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회의 및 case coference

집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집단치료적 개입을 비롯하여 각 사례담당자의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적인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낮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던 사례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로 case conference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학제간 팀접근을 통해 회원의 욕구에 부합되는 부분을 함께 논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 설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천방안을 함께 연구 하는 기회로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신설프로그램과 개편 및 중단장한 프로그램

① 함께하는 의사 결정(SDM : Shared Decision Making)

- 함께 하는 의사결정은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에서 보급중인 프로그램으로 환자와 치료자가 치료의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 하고 결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치료가 성공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환자와 정신보건전문가 사이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치료진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안하고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치료자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갖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치료의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②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요리강좌 프로그램 “행복을 만드는 레시피”

-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던 중 식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요리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③ 바리스타 양성 프로그램 “With Coffee & With Barista”

- 동아요리학원과의 연계를 통해 커피관련 전문가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시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④ 취업준비교육

- 직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익혀야 할 사회기술을 공부하고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구직활동, 면접기술, 대인관계 훈련, 취업 후 금전관리 등을 미리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⑤ 영어교실

- 외국어는 현대 사회의 필수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지난학기동안 일어 교실과 베트남어 교실을 통해 일어와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 하였으며 이번학기부터 자원봉사자 정환용 선생님과 함께 영어 교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환용 선생님은 미국유학생으로 현재 미시건 주립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며 군복부를 위해 휴학하고 귀국하셔서 본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⑥ 라디오스타

- 누구나 추억이 있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한국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그려 보며 아름다운 정서를 공유하기 위하여 사연과 함께 음악을 소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학기까지 낮 병원에서만 시행해 오던 이 프로그램을 병동에서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추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⑥ 좋은 사람

- 병동에서 실시 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하면서 나와 타인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입니다

지난 6월 15일~ 16일 1박 2일로 캠프를 떠났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 낮병원 회원과 율타리회 가족분들, 그리고 재활팀 직원 등 60여명이 함께 떠난 “나눔과행복 웰빙캠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나눔과행복과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금속공예가 진영섭 교수님의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하동 하늘땅번지 마을을 찾아 익숙한 공공미술작품들과 함께 하는 기쁨이 편안함으로 다가와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캠프 소감문을 받아 당선된 하광조 회원님과 재활팀 한미경 선생님의 캠프 소감문을 소식지에 실어 봅니다.

캠프를 다녀와서..

낮병원 하광조

2012. 6.15 일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캠프 갈 날짜가 다가왔다.

장소는 하동 악양마을 일대 .. 이곳은 나의 외할머니댁 근처이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다. 아침 9시40분 까지 나눔과행복병원 시청각 교실에서 집합하였고 오전 10시쯤에 준비가 되어서 각조로 나뉘어서 고속버스 차량대와 봉고차로 나뉘어서 출발을 하였다. 나는 김재덕 선생님과 허다운 선생님이 속한 봉고차로 탑승하였고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진영휴게소 까지 달렸다. 나는 조수석 앉아서 운전하는 김재덕 선생님이 잘 운전할 수 있게 보조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만했다. 마음한편으로는 고속버스를 타서 편안하게 가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다.

진영휴게소에서 쉼 뒤 곧바로 쪽 달려서 진주 수목원에 들렸다. 여기서 수목원을 산책하고 점심을 간단하게 먹었다. 김밥2줄! 소박하지만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먹고 야외에 나와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다. 잠시 뒤 비가 조금 내려서 아쉬운 마음으로 빨리 차량에 올라섰고 바로 하동으로 출발하였다.



진주에서 하동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하동

읍에서 악양까지 들어가는 시간도 조금 걸린다. 하동에 도착하니 역시나 섬진강이 보였다. 섬진강은 1급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물로 알고 있다. 재첩도 유명하고 어렸을 때 이모님이랑 외삼촌이랑 섬진강에서 재첩 잡기위해 얇은 강에 바지를 걸어 올리고 강에 들어간 기억도 생생하다. 악양에 도착하였을 때쯤 악양중학교가 보였다. 여기는 우리엄마 외삼촌 이모님 모두 졸업한 학교이다. 어머니는 4남 3녀 중 둘째 이시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합창시간에 배웠던 “시월의 마지막 밤” 노래가 봉고차 차량 안에서 음악이 들렸다. 마음속으로 너무 평하게 나의 감정을 복받치게 했다.



이제우리 회원들은 짐을 꾸리고 1박2일 동안 목을 하늘땅번지에 들렸다. 시간은 3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다. 나는 이곳에서 잠시 쉬 뒤 일행들과 떨어져 곧바로 5분정도만 내려가면 있는 외할머니를 뵈러갔다. 외할머니는 81세 이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이 나를 힘겹게 했다. 외할머니께서도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6시 반쯤 막내외삼촌이 퇴근하고 오셨다. 막내외삼촌은 김해 진영에 사시는데, 직장을 하동으로 옮기셨다고 외할머니한테 전해 들었다. 아마도 막내외삼촌이 외할머니를 여기서 편히 모시려고 이곳에 머무르며 함께 생활하시는 것 같다. 외할머니랑 막내외삼촌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저녁에 삼겹살을 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잘 먹은 것 같다.

박경덕 팀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저녁8시15분쯤에 이곳에 다시 와서 레크레이션도 즐기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정말 잊지 못하는 장면은 서영수 원장님과 김재덕 선생님이 팔씨름을 하였는데 서영수 원장님이 이기셨다. 나는 김재덕 선생님이 이기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장님이 이기실줄 몰랐다. 화이팅이라고 열심히 응원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나는 외할머니 댁에서 하루밤을 자고 토요일 아침에 외할머니 외삼촌께 인사를 드리고 하늘땅번지마을로 다시 올라왔다.

6월 16일 토요일 아침은 날씨가 정말 좋았다. 아침은

와할머니 댁에서 먹어서 생각은 없었고 이시간 이후로 가족들에게 쓴 편지 낭독 시간이었다. 모두 자신들의 어머니 가족들에 대한 편지 낭독이 이어졌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나는 편지를 쓰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나서 손을들고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얼마나 속을 썩이고 불효를 많이 했는지 앞으로 열심히 씩씩하게 살려고 엄마와의 약속도 했다.

괜스레 울적한 마음이 들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김재덕 선생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북돋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잊을 수가 없었고 용기가 났다. 점심은 정말 많이 먹었던 걸로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나물 등과 자연에서 나는 반찬 너무도 잘 먹었고 배불리 잘 먹었다. 이제 마을사람들과 인사드리고 헤어지고 최참판댁을 구경하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1박2일 짧은 여정이었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추억이었으며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 계기로 인하여 정말 인연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이런 인연이 없었으면 여기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동 악양마을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순수하고 모두모두 장수하시길 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다....., 엄마~~ 사랑해.....!!



목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healing

재활팀 한미경

1박 2일의 캠프는 근 한 달 동안 재활팀의 고민거리였다. 캠프를 기대하는 많은 회원님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가족들까지 참여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주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에 마음들이 무거웠다. 캠프에 대한 만족도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높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라는 변수는 진주수목원 구경,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Mission impossible' 시간을 앗아갔다. 그래도 다행히 악양 하늘땅번지 마을 주민의 맛깔 나는 진행으로 마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직접 마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며 일정을 메꿀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 냈던 것은 숙소에서의 일이다. 비가 와서 회원님들의 상실감이 클까봐 걱정하며 숙소에 들어갔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히려 비가 와서 선생님들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회원님들이었다. 방 중간에 '선생님 자리'를 만들고 밤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같이 잘 생각에 기분이 좋다고 하셨다. 그때야 깨달았던 사실은 캠프는 거창한 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놀러 간다는 기분,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다.

함께 하는 즐거움은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배가 되었다. 서로 알아가고, 게임하면서 친해지면서 매일 보는 낯익은 생활과는 또 다른 친근함이었다. 치료진과 회원의 관계가 아닌 오랜 친구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였다. 캠프의 백미는 모든 사람들이 수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사'에 있었다. 악양 하늘땅번지 마을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이었다. 사실 회원님들 중에 편식이 심하신 분도 계셨는데 놀랍게도 야채를 맛있게 드셨다. 입맛이 없는 분들은 꼭 이 마을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산행 일정도 있었는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등지고 사진을 찍으며 함께 한다는 즐거움이 마음속에 스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캠프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숙소를 정리하고 모든 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전날 적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심을 담은 편지는 글의 문법과 문맥에 상관없이 감동적이었다. 다들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을 잊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공감이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율타리회 윤희장님의 맺음말을 들으면서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사 4개월 신입직원인 나에게 캠프라는 이벤트는 꽤 긴장되었던 것 같다. 하지만 철두철미한 계획, 멋진 프로그램으로 짜인 일정보다 함께 하는 마음과 부지런한 손과 발이 있으면 충분했던 시간이었다. 캠프덕분에 좋은 곳을 알게 되고, 회원님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뜻 깊었다. 있는 그대로의 healing, 다음 캠프를 기대해본다.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Peace in Mind”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나눔과행복병원은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을 목표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그 일환으로 식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요리/바리스타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 요리강좌 일정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장소 : 부산여자대학교)

• 바리스타 강좌 일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동아요리학원)

식문화 관련 요리 및 바리스타 강좌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식욕은 성욕과 더불어 인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본능이므로 식욕과 관련된 치료적 접근은 용이할 뿐 아니라 환자의 동기를 강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란 생각이며,

둘째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독립에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의 한가지인 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삶의 질과도 직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셋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는 누구나의 관심사로서 결국 풍요롭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활성화 영향을 줄 것이며,

넷째

맛과 관련해서는 평소 억압된 주관적 감정표현이 용이할 것이며,

다섯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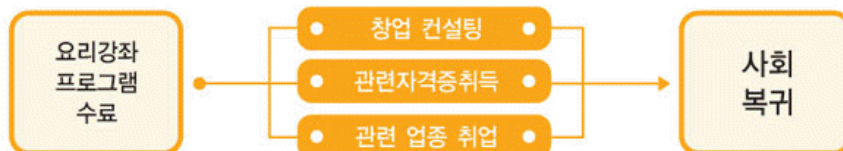
함께하는 요리작업을 통한 동료환우들과의 상호관계를 익히고,

여섯째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통해 자존감이 향상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기타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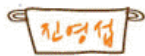
우수한 강사진을 갖추고 훌륭한 지역사회 시설 자원을 활용한다면 보다 큰 관심을 끌어내는 것은 물론 나아가 취업 및 창업으로의 연계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좌를 통해 식문화 관련 관심과 재능, 그리고 가족의 동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멘토링 작업을 통한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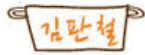
● 요리강좌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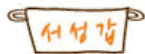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학과장)
전) 롯데호텔총주방장, 파라다이스호텔 총주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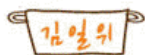
금속공예가, 아트팩토리인다대표 대표
부산식문화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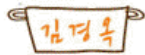
전) 한국조리사협회 부산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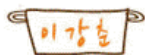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겸임교수
조리명인(조리명인선정위원회)
비법전문가 및 외식 컨설팅(소상공인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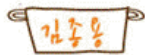
효재한정식 대표
영산대학교 조리학부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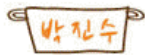
동아요리학원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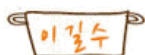
경남정보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계열 교수(학과장)
전) 롯데호텔서울 책임조리장
전) 롯데호텔부산 수석조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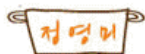
대동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학과장)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길초밥 대표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겸임교수



부산여자대학교 호텔외식조리과 교수



● 바리스타 과정 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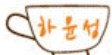
동아요리학원 원장
경성대학교 바리스타 과정 책임강사



브라운 빈 대표



카페톡톡 대표



양산바리스타학원 원장



나눔과행복병원 연혁

08. 03. 26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설립
09. 07. 03	나눔과행복병원 개설 및 허가
09. 09. 05	나눔과행복병원 개원기념식
09. 09. 10	사회복지시설 위캔클럽 설치 신고
10. 09. 01	사회복지법인내 사업단 프롤로그 오픈
10. 09. 10	나눔과행복병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 및 프롤로그 오픈식
10. 11. 25	부산광역시 우수정신보건사업 선정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11. 04. 27	한국바리스타 대회 장애인부 출전 동상 수상
11. 08. 14	부산-시카고 자매도시 국제교류행사 Mark Damisch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을 위한 나눔과행복 음악회
11. 11. 01	해운대힐링스병원 인수 통합
11.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 인권실천 우수 사례 선정
12. 02. 18	해운대힐링스병원 통합 오픈식
12. 03. 28	행복한 미술 프로젝트 작품전시회 “편견과소통전” 오프닝
12. 04. 19	정신장애인고용 유공자 선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표창 “서영수 원장님”
12. 04. 20	장애인의 날 기념식 부산광역시장 표창 수상 “서영수 원장님” 가족강사 양성교육 중앙심화과정 가족강사 배출 : 4명
12. 05. 01	나눔과행복병원 해운대힐링스병원 통합 체육대회
12. 05. 15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피스인마인드” 프로그램 공모 선정 일상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요리강좌 프로그램 “행복을 만드는 레시피”

핵심가치의 정의

- 최고지향** 근거 중심의 차원이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도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 고객중심** 나눔과행복을 찾는 모든 분들을 내 가족같이 대하며 그들의 내적성장과 행복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 상호 신뢰와 존중**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것
- 주인의식** 우리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내가 곧 나눔과행복이라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 지역사회정신보건에 이바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정신보건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 하는 것

사명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 외부강연 & 학술활동 (2012년 상반기)

02. 02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부울경지부 학술모임 “주거시설의 배경 및 선진사례”	서영수 원장
03. 27	지역사회정신간호연구회학술모임 “정신약물학”	정성수 원장
04. 17	지역사회정신간호 연구회 학술모임 “정신보건시설 사무 행정관리”	박경덕 재활팀장
04. 19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강좌 카페움 알코올 문제가 동반된 노숙인의 이해와 사례관리	서영수 원장 정성수 원장
05. 17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부울경지부 학술모임 “낮병원에서의 주간재활의 원리와 실제”	박경덕 재활팀장
05. 24	2012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관계자 워크숍 국가정신보건정책의 미래 분과 발표 : 사회복귀시설 우수 직업재활사례 “위캔클럽 직업재활 운영 사례”	박경덕 재활팀장
05. 26	정신보건간호사 수련과정 “사회복지개론”, “정신보건시설 사무 행정관리”	박경덕 재활팀장
05. 31	동원복지관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박경덕 재활팀장
06. 12	국립춘천병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세미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사례”	박경덕 재활팀장
06. 28	동원복지관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정신질환의 약물치료”	박경덕 재활팀장

○ 2012년 상반기 나눔과행복병원 전체 직원 & 치료인력교육

월 일	주 제	강 사
1. 05	나눔과행복병원 vision 2012	서영수 원장
1. 19	수면장애의 이해와 치료	이문숙 세명병원 진료부장
2. 02	치료적인 의사소통	정성수 원장
2. 16	조현병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	정성수 원장
3. 08	자기관리전략을 위한 셀프 리더십	윤 진 (주) 공감 대표
4. 05	직장인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윤 진 (주) 공감 대표
5. 03	직장건강검진 프로그램 소개	김정렬 힐링스병원 원무과장
6. 0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허옥임 간호과장
6. 21	중독치료를 위한 동기강화 요법	박성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7. 19	교류분석을 적용한 상담기법 및 사례	이영호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2년 상반기 입·퇴사자

2012년 상반기 퇴사자		2012년 상반기 입사자	
2월 19일	간호팀 윤규택 보호사	1월 1일	간호팀 김윤희 간호사
2월 29일	간호팀 이덕수 보호사	2월 1일	재활팀 박애령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월 29일	간호팀 김성한 간호사	2월 13일	간호팀 김경철 보호사
4월 30일	간호팀 김성미 간호사	3월 1일	간호팀 이호열 보호사
4월 30일	간호팀 김종민 보호사	3월 1일	재활팀 한미경 정신보건사회복지사
6월 30일	원무행정팀 김점순 영양사	3월 1일	간호팀 김애영 간호사
6월 30일	원무행정팀 한필점 조리원	4월 1일	간호팀 권재혁 보호사
6월 30일	재활팀 김희진 정신보건간호사	6월 1일	간호팀 홍락권 보호사
6월 30일	재활팀 이정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7월 1일	원무행정팀 서민아 영양사
6월 30일	간호팀 박금열 보호사	7월 1일	원무행정팀 최분열 조리원
		7월 16일	간호팀 전민수 보호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눔과행복과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나눔과행복의 새 가족이 됨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 실습기관

나눔과행복병원 및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위캔클럽

• 정신보건전문가 양성

– 부산대학교 병원 정신보건간호사 수련생 정신재활실습

• 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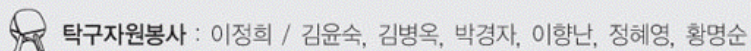
–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재활실습
–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재활실습

• 간호학과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병동간호 및 정신재활실습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및 정신재활실습
–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및 정신재활실습
– 신라대학교 간호학과 병동간호 및 정신재활실습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정신재활실습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지역사회정신간호 실습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학사학위특별과정 지역사회정신간호 실습
–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정신재활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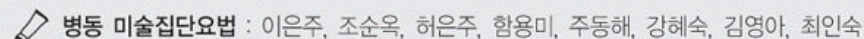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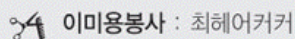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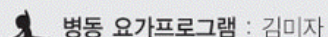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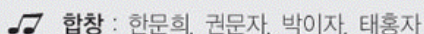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 명단

통합재활치료 중심의 나고과행복병원에는 아름다운 실천을 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함께 있어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인식개선에도 기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상반기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며 감사장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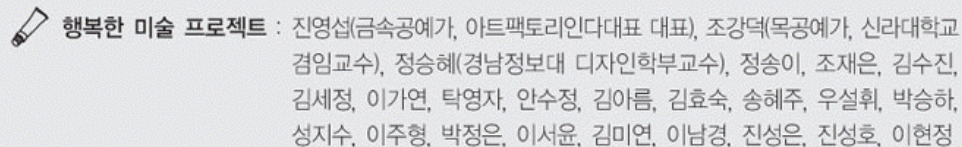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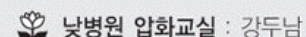
a 낮병원 영어교실 : 정환용

kh 낮병원 베트남어 교실 : 레티홍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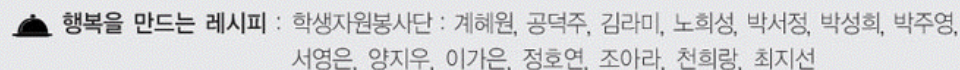
일 년간 자원봉사로 낮병원 회원분들께 베트남어를 가르쳐 주셨던

레티훙한 선생님께서 취업관계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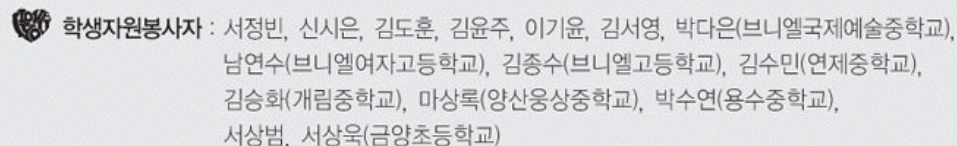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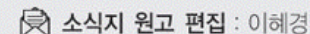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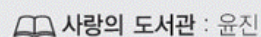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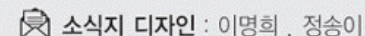
성지수, 이주형, 박정은, 이서윤, 김미연, 이남경, 진성은, 진성호, 이현정



서영은, 양지우, 이가은, 정호연, 조아라, 천희량, 최지선



서상범, 서상욱(금양초등학교)



● 후원자 소개 및 후원안내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을 후원해 주신 분들

곽혜정, 권선용, 그리스도대학교, 김가을, 김광현, 김대운, 김록우, 김미영, 김민지, 김수민, 김영애, 김영호, 김윤수, 김성식, 김정선, 김지원, 김지은, 김추자, 김혜준, 도광미, 문상우, 박경덕, 박동욱, 박명순, 박성환, 박용수, 박정현, 배광희, 서범주, 서영훈, 서은경, 선우성, 신형철, 신희원, 안청자, 양무도, 왕태호, 유구필, 유광일, 윤동영, 이미경, 이옥선, 이원임, 이은희, 이재훈, 이종태, 이춘임, 이해련, 이현정, 이현주, 정문자, 정승혜, 정인옥, 정찬중, 정혜선, 조득만, 주우철, 최미옥, 최은영, 하인숙, 한경자, 허미순, 허옥임 (가나다순)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2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후원금 결산

세 입		세 출	
총액	6,112,020	총액	5,369,330
후원금 수입	6,112,020	사무비	922,900
		사업비	4,378,530
		시설전출금	67,900

2012.01.01~2012.06.30 (단위 : 원)

● 위캔클럽 후원자명단

강정환, 박경희, 서금석, 신지원, 이종태, 한경희, 한영희, 해피빈
후원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2년 상반기 위캔클럽 후원금 결산

세 입		세 출	
총액	566,817	총액	39,400
후원금수입	566,817	사무비	27,400
		사업비	12,000

2012.01.01~2012.06.30 (단위 : 원)

● 후원안내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의 후원금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정신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장(프롤로그 외) 운영등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후원금액 : 10,000원 이상
- 후원계좌 : 부산은행 242-01-001802-7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하나은행 319-910003-41104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농협 317-0002-9645-81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 후원문의 : 051-507-8008 박경덕 시설장 / 곽혜정

해운대힐링스병원 소개

2012년 11월부터 나눔과행복병원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 업그레이드된 해운대힐링스병원

해운대힐링스병원은 지상 3층~9층, 321병상 규모의 재활의학전문병원으로, 2011년 11월 1일 백선미 병원장의 취임과 함께 기존의 재활전문병원에 갑상선·유방센터, 건강증진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한층 더 특화되고 업그레이드된 전문병원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재활의학

해운대힐링스병원은 재활·요양병원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아)급성기재활병원입니다. 재활치료는 발병 후 6개월이 중요합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운동치료 매 2회 실시
- 전동조절식 일상생활 동작훈련실(ADL)
- 600명 규모의 재활치료실
- 본인 부담금 없는 넓고 쾌적한 4인 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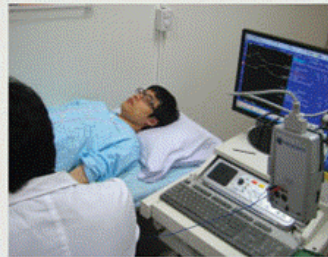
- 환자 개인별 최첨단 LCD TV제공
- 환자 중심의 넉넉한 샤워 및 목욕시설
- 장애인차량, 구급차 무상지원
- 휴식 공간(카페테리아, 하늘정원)
- 각 층마다 차별화 된 테마 휴게실



80여 명의 풍부한 전문재활인력의 1:1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



600명 규모의 넓은 재활치료실 맞춤형 운동치료 매 2회 실시



첨단 재활의료장비와 시설



본인 부담금 없는 넓고 쾌적한 4인 병실



각 층마다 차별화 된 테마 휴게실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야외 테라스 하늘공원

재활의학이란

선천적으로 또는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주어진 조건하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뿐 아니라 취미, 직업, 교육 등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줌으로써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의학입니다.

통증재활클리닉



통증이 감소되거나 염증이 완화되며 근육경련이 감소되고 근육이 강화되어, 근육의 움직임이 빠르게 재교육 되어 통증이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만성적인 통증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대상환자 . . . 신경계 손상환자, 근/골격계 질환환자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 장애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력이 약화되거나 이동·보행·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환자

운동치료

처방된 운동치료 프로그램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환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손상된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 줍니다.



호흡재활치료

신경근육계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호흡기 사용 및 호흡기계 관리를 통해 환자는 생명연장 뿐 아니라 생존기간 동안 합병증을 최소화하여 이전보다 더욱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일상생활 중 요구되는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의 회복을 도와주는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언어치료

환자로 하여금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외에도 원활한 대인관계를 갖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요대상환자 . . .

1. 뇌졸중, 척수손상, 파킨슨병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 장애
2. 수술후 재활(인공관절 치환술, 회전근개 파열 등)
3. 근/골격계 통증(오십견, 경부통, 요통,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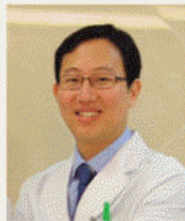
4. 삼킴장애
5. 언어장애

+ 의료진 분야별 우수한 재활의학 의료진의 체계적 진료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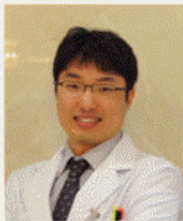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최규철** 진료원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경기도립 의정부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일산일명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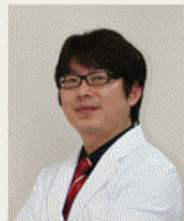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김민준** 진료부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부산 효동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재활의학과 **이동석** 과장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재활의학과 **고원진** 과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림대학교 성상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연세 세미래 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 갑상선/유방센터

여성을 위한 특화검진 실시

우수한 여성 의료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화된 진료를 제공합니다.



백 선 미

힐링스병원장 갑상선·유방 전문센터장

- 신촌세브란스 병원 유방갑상선 연수
- 미국 컬럼비아 대학 유방연수
- 뉴욕 세인트 빈센트 병원 갑상선 연수
- 서울 아산병원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연수

- 대한 갑상선 영상의학회 이사
-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진료권고안 개정위원
- 갑상선 교과서 편집위원
- 대한 유방영상의학회 정회원
- 전 침례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원스톱 시스템

한번 방문으로 검사와 시술이 가능

갑상선·유방 관련 전문적 체계를 바탕으로 간단한 절차만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제공합니다.

전문진료 서비스

갑상선·유방암에 대한 우수한 전문인력이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환자중심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장비

갑상선·유방암 진단에 우수한 대학병원과 동일한 최고의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수술 클리닉

수술 없이 갑상선 유방 종양 제거

갑상선 고주파클리닉과 유방 맘모툰 클리닉을 통해 갑상선, 유방 종양을 수술 없이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수술 없이 혹 제거

고주파 절제술은 초음파를 보며 전극을 갑상선 결절 안에 삽입하여 열로 혹을 없애는 시술입니다. 전통적인 수술법이 혹과 함께 갑상선도 같이 절제하여 밖으로 꺼내는 데 반해 고주파 절제술은 혹만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미 갑갑을 비롯한 폐암, 신장암, 두경부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각종 암과 양성종양으로 갑상선이나 간, 신장, 뼈의 종양 등의 치료에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고주파 절제술의 장점

- 갑상선 혹을 수술 않고 전혀 흉터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 치료 후 4시간 정도 경과 관찰 후 귀가 가능합니다.
-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로 치료 가능하여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 대부분 1회 시술로 치료가 종료됩니다.
- 혹만 치료하고 정상 갑상선은 그대로 남겨두어 갑상선 기능은 변화 없이 대부분 유지됩니다.
- 수술에 비해 덜 아프고 회복이 빠릅니다.

고주파 절제술 시술중례
갑상선결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



갑상선 결절 15cm

시술 후

맘모툰 절제술 맘모툰 시술과정



영상유도하에 바늘을 병변에 위치
바늘 안으로 조직을 흡입
바늘 내부의 회전칼이 작동하여 조직을 절제
절라낸 조직을 밖으로 배출

맘모툰을 꼭 해야 하나요?

1. 암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에만 제거하세요.

조직검사 없이 제거했다가 암으로 밝혀지는 경우 향후 치료 과정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 유방센터에서는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조직검사를 먼저 해서 확인합니다.

2. 암일까 겁이 나서 제거하세요?

암의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심해지면 무조건 제거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의사에게 그런 가능성에 대한 말을 들으면 더욱 제거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혹이 암인 경우나 암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드물며 대부분 제거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양성 혹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 제거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맘모툰으로 제거하는 것이 권장되는 경우들

- 조직검사 결과상 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암은 아니지만 계속 크기가 자라는 확인 경우
- 통증이 있거나 만져지는 확인 경우
- 조직검사는 양성으로 나왔지만 초음파에서 모양이 좋아보이지 않는 경우
- 임신,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장기간 혹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 건강증진센터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표로 하는 건강증진센터입니다. 특화된 검진 항목 등을 갖추어 **전문적인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 실력 있는 센터

풍부한 시술경험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진료해 온 전문 의들이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건강검진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첨단장비를 갖춘 센터

대학병원에 견줄 만한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2차 의료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맞춤형 검진을 제공합니다.

○ 여성특화검진을 가장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센터

10여 년 간 갑상선암·유방암 진료 경험과 국내 및 해외연수를 통해 수준 높고 효율적인 환자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갑상선·유방센터와 연계된 여성 특화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번의 방문으로 진단부터 조직검사까지 완료될 수 있는 검진을 시행하는 센터

대부분의 검진센터의 경우, 진단과 동시에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힐링스병원에서는 특화된 갑상선·유방센터 및 소화기내시경센터와 연계되어 영상진단 및 내시경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직접 시술함으로써 진단과 함께 조직검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적인 맞춤형 검진을 시행하는 센터

힐링스만의 특화된 검진 항목을 갖추어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전문적인 맞춤형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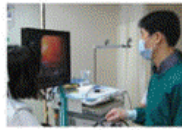
○ 쾌적하고 아늑한 갤러리와의 같은 센터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늑한 갤러리와의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무료건강검진 지정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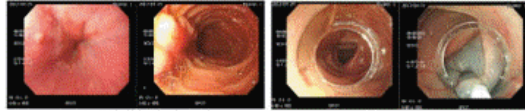


+ 소화기내시경센터



해운대힐링스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다양한 소화기 질환을 개인별 맞춤형 진료로 시행합니다.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에 이르는 위장관과 간, 쓸개, 췌장 등에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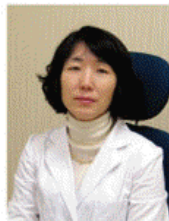
위 내시경 사진

대장 내시경 사진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신체활동이 적어지면서 소화기 질환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양한 장기가 있는 만큼 다양한 질환이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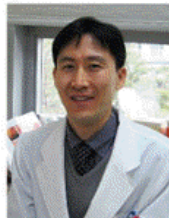
본원에서는 최신 내시경 장비인 olympus H260모델을 구비하고 있어 대장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진단하고 바로 절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환자분들께 더 편리한 진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의료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 정혜미 과장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동아대학병원 전공의
동아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전임강사
전 메리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세부전공분야] 건강증진/비만/골다공증



내과전문의 임주건 과장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 침례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전 부산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소화기 내시경 세부전문의
노년내과 과정 이수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
대한간학회 회원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회원
[세부전공분야] 위·대장질환/간질환/췌담도 질환



갑상선·유방센터
백선미 병원장



2012년 진영섭 作 「Home, Sweet Home」

나눔과행복병원 낮병원 소식지 통권 5호

나눔과행복
sharing and happiness

발행처 나눔과행복병원,
사회복지법인 나눔과행복

발행인 서영수

편집인 박경덕

편집위원 김혜준, 김완옥, 김재덕
박애령 이미경

인쇄 동아기획
051-291-7605

발행일 2012년 9월

나눔과행복병원

부산 동래구 온천3동 1339-1번지

전화 051-507-7011

팩스 051-507-6429

정신장애인 사회복지기시설 위캔클럽

부산 동래구 온천 3동 1339-1번지

전화 051-507-8008

팩스 051-507-8078

해운대힐링스병원

부산 해운대구 중동 1766-3번지 이룸타워 3F

전화 051-744-0123

홈페이지

www.shmh.co.kr

www.healingshae.com

*2012년 11월부터 해운대힐링스병원이
나눔과행복병원으로 병원명이 바뀝니다.

[요일별 진료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진료 09:30~12:30	하태민	서영수	정성수	서영수	하태민	서영수 하태민 정성수
오후진료 13:30~17:30	정성수	하태민	하태민	정성수	정성수	



지하철 | 지하철 미남역 5번 출구

자가용 | 미남교차로에서 사직동 방향 30M 전방

버 스 | 44, 50, 57, 80, 111, 131, 189, 210번
반도스카이(미남지하철역) 하차

607-839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339-1번지

TEL. 051-507-7011

지하철 3호선 미남역 5번 출구

